

소비급증, 원자재비 상승속에 해외자본 적극 유치 나서

□ 취재/김동진 기자

1. 중국양계업 시찰 개황

인구 12억, 국토면적 580만 km²(남한의 약 60배), 조선족을 비롯해 56개 민족이 모여 사는 거대한 나라 중국. 민주화 이후 중국이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국민소득이 증가되는 등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배경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에서는 고층건물과 도로들이 '우후죽순'처럼 건설되고, 농촌에서는 축산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농업발전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자유가 보장되지만 사회주의 체제가 잔존해 있는 미묘한 사회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남녀평등이 생활화 되어 도시나 농촌 어디서나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두드러지며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가운데 돈 잘버는 직종인 상점경영, 택시기사 등이 인기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8월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중국의 양계산업을 파악키 위해 국내의 많은 양계인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초기에는 '후진국 수준이라 크게 걱정할 나라가 아니다'라고 치부했으나 최근 들어 '한국에까지 수출여력이 충분히 있는 경제의 대상국'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78년 이후 중국의 축산물 생산액은 연평균 17.4% 성장하여 총 농업생산액 증가율 13.4%를 훨씬 상회하였다. 가금류는 세계사육수수의 18.7%인 29억6천만수가 사육되고 있는데 돼지보다 사료전환율이 좋고 도시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 중국양계산업 시찰단 일행 천안문광장 앞에서 기념 촬영

사육수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들어 원자재 가격상승 등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에 옥수수가 톤당 7~8만원(한화-이하동일)하던 것이 현재는 16만원으로 뛰어 생산비가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중국도 원자재를 수입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본회가 지난 9월 13일 부터 20일 까지 7박8일에 걸쳐 중국양계산업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중국양계산업시찰단(단장 최준구)을 17명으로 구성, 파견하여 상해, 성도, 북경, 연길 지역을 시찰하였다.

이번 시찰단은 중국 제9차 가금무역박람회, 연변농학원

양계산업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가금무역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95한국양계박람회와 비교해 볼때 양국간의 양계산업을 파악하는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서울을 출발하여 우리 일행이 처음 중국땅을 밟은 곳은 상해로 세계 10대 무역도시중의 하나이며 1926년부터 7년간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치던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가 있는 곳이다.

곳곳에 높은 빌딩이 세워지고 고가도로가 건설중에 있어 중국의 발전상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거리에는 상대적으로 화려함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도로마다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자전거가 인상적

및 부속 농장, 북경 미원 사료 공장, 중일 농장 등의 양계 관련 행사 및 시설을 방문 하여 중국 의 이었고 택시마다 운전석을 보호하는 플라스틱막을 설치(강도피해를 줄이기 위함)해 답답함마저 들었다. 중국의 공무원 월급수준은 7~8만원정도인데 상해는 생활수준이 타 지역보다 높아 10만원정도라 한다. 상해에서 정부청사와 황포강을 견학하고 곧바로 사천성 성도시로 이동, 여장을 풀었다.

2. 중국 제9차 가금무역 박람회

1억2천만의 인구가 사는 사천성의 가금산업은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94년의 가금생산수는 4.03억수이며 그중 닭을 제외한 오리, 거위의 사육숫자는 전국의 20%를 차지하는 1.96억수가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1인당 고기소비량이 51Kg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축산이 발전했는데 '94년도 고기생산량은 570만톤에 이른다.

14일 가금무역박람회의 개막행사를 참관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서두른 일행은 조경이 비교적 잘 되어있는 성도 시내를 돌아보며 박람회장에



△ 제9차 중국 가금무역박람회 외부 전경-각종 프랑카드와 대형 풍선들이 이채롭다.

도착하였다. 박람회장 외부는 온통 프랑카드 전시회를 방불케하는 듯 현란한 현수막과 대형풍선 등이 장식되어 일행을 반겨주었다.

중국가금업협회가 주최하고 사천성축목식품국과 사천성가금업협회가 주관한 중국 제9차가금무역박람회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성도시국제무역센터에서 열렸는데 16개국에서 372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한국에서도 ABC열풍기사 등 몇개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하였고, 외국업체수는 미국(13), 네델란드(11), 홍콩(10)순으로 외국업체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입장료 8,000원(내국인은 5,000원)을 지불하고 개막식

가 힘들정도였다. 개막식 행사에 이어 10시부터 일반인들의 관람이 시작되었는데 개장시간은 9시부터 오후 5시로 되어 있었다. 개막을 알리는 군악대의 축하음악과 서유기에 등장하는 손오공을 비롯한 주인공들이 참관인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광경이 이색적이었다.

박람회장 내부는 3층에 걸쳐 전시가 이어졌는데 인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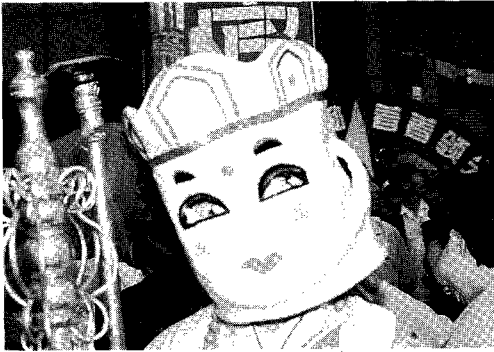
행사에 입장할 수 있었는데 상당수의 인원이(필자의 개찰번호가 8001번이었음)이 몰려해 집고 들어가기

에 밀려 전시한 부스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아직도 설계가 덜된 곳을 보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곳에서 허술함을 볼 수도 있었다.

내부에는 한 부스가 3×3m² 넓이로 2개부스 이상을 사용하는 업체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는 케이지 등 부피가 큰 기계·기구의 전시가 실내에는 전혀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부장식은 스티커와 팜플렛 등을 벽에 붙여 놓고 앞쪽에는 전시품(사료, 약품, 급이기 급수기 등 간단한 제품)을 전시한 정도였으며 외부에 전시된 기자재들은 케이지, 부하기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허술하게 조립되어 보이는 케이지가 전시품을 대



△ 개관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린 박람회장 내부



△ 박람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서유기의 주인공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변해주는 듯 하였고, 대형 부화기 업체의 많은 참여가 특징적이었으나 소비홍보 행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가금업자들만을 위한 박람회 인듯한 인상을 받았다.

또한 내부온도가 무척 더운데도 냉방시설은 전혀 없었어



△ 박람회장 외부에 전시된 A형 4단케이지

있어 일행중에는 1층만 돌아보고 별로 볼것이 없다며 박람회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는데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인원을 통제할 정도로 인파가 몰린 것은 인상적이었다.

가금박람회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전시품이 빈약했지만 자동화에 최대한 다가서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가공기계와 계분처리 시설이 없었음은 아직도 그 분야는 큰 관심거리가 아닌양 싶었다.

일행은 성도를 떠나 북경을 경유해 1986년 건설된 연변공항에 도착하였다. 저녁 늦게 도착한 연길시는 불빛 사이로 보이는 상점들의 간판이 온통 한글로 쓰여져 있어 한국에 온 것처럼 친숙한 인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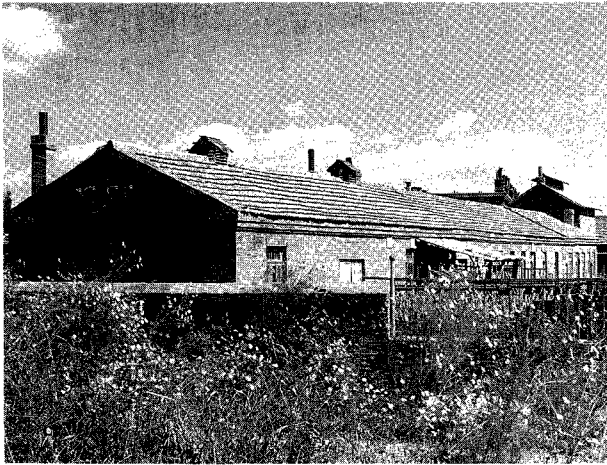
중국내 전체 한국 교포수는 200만으로 85만이 연변에 거주한다. 연길시의 인구는 34만 인구에 우리교포는 그

중 61%가 살고 유동인구가 하루에 8만명이나 된다. 조선족과 같은 소수민족은 두명까지 자녀를 둘 수 있으나 인구정책상 한(漢)족은 한명으로 제한된다. 소수민족 중에는 베트남족과 같이 평생을 셋지 않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타이족의 남성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전통인 부족들이 있어 생활풍습이 각기 다르다.

택시가 많기로 유명한 연길시는 500원의 택시요금만 지불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야간에(10시 이후)는 가격이 두배로 된다. 이곳은 성도와 상해처럼 운전석과 손님 사이에 분리대가 없었고 택시 가격도 성도(680원)와 북경(1,000원)처럼 기본요금제로 계산되지 않는 것이 달랐다. 그동안 중국음식(사천성 요리 등)만으로 길들여진 일행들은 연길에서의 한국요리를 접하면서 '역시 맛있다'라는 말을 연발하며 식사를 즐길 정도로 조선족내의 생활과 곧바로 친숙해질 수 있었다.

3. 연변농학원

16일 연길시에서 한시간 정



△ 흙벽돌로 지은 연변농학원내 양계장 모습

도 떨어진 연변농학원(원장 김성광)은 토요일이라 그런지 학생들이 거의 없고 한산했으며 10년전 유행하던 모가수의 노래가 친숙하게 학원내를 울려 과거로 되돌아간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학교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일주일에 2일(토, 일요일)을 법적으로 쉬게 하는데 이는 자유화 이후 실업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최대한 방지키 위해 정책적으로 취하는 하나의 방편이란 다.

1949년 설립되어 45년 전통을 가진 연변농학원은 4년제로 5개학부(농학부, 축산학부, 수의학부, 과수임업학부, 농업기계학부)로 나뉘어 지며 재학생이 1,300명에 이르고 있는데 학생중 85%가, 교원

루어 졌고 한국과는 국제 수교가 이루어진 후 부터 교류가 활발해 졌는데 부속농장을 배경으로 축산과 원예쪽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대학들과 공동으로 통일벼 연구, 백두산 동식물 연구 등이 활발하며, 한국에 연수생을 보내기도 하는 등 한국과는 광범위하고 빠르게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속 농장은 과수원예농장과 축산농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방문할 당시는 안타깝게 닭들이 한마리도 없어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이용되는 계사만을 살펴보고 연변의 양계현황만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연변의 양계규모는 5,6만수

의 98%가 조선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 교류부를 통해 1970년부터 일본과 처음으로 교류가 이

규모의 농장이 10여개 있고 대부분이 1만수 미만으로 개인집에서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실정인데 연변은 조선족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주로 즐겨하며 닭고기는 크게 반기지 않는 편이어서 육계보다는 산란계 사육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세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주로 봄철에는 가격이 하락하고 명절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보통 1kg에 640원 하는 계란이 명절에는 760원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계란은 백색란보다 갈색란을 선호하며 가격도 kg에 20원에서 30원의 차이를 보인다. 닭고기는 도체가격으로 1,200원~1,400원/kg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의 교육은 의무제도가 없으며 부모들이 모두 돈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이 많아 곳곳에 탁아소 시설이 많이 있으며 국민학교 1년 동안의 학자금이 20만원이 들 정도로 가계에 부담이 커 어렸을때 부터 일터로 나가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

〈다음호에 계속〉